

# CMIS 구축을 위한 제주지역 조직 구성

소 대 화\* · 배 두 안\*\* · 김 용 철\*\*\*

## Organization of KSS Jeju-district for CMIS Construction

Soh, Dea-Wha\* · Bae, Doo-An\*\* · Kim, Yong-Chul\*\*\*

요약: 학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조직의 모체로써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두어 설립목적의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동굴의 지역적 분포 특성과 동굴마다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할 때, 동굴학회의 특성상 각 지역 지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우리 학회가 추구하는 동굴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방안으로 동굴관리정보시스템(CMIS)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와 그 기반형성의 지역 조직구성을 공고히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화산동굴 유산을 지니고 있는 제주지역 조직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며, 그 추진을 희망하여 요청한다.

### I. 들어가기

한국동굴학회 월례정기학술심포지엄은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동굴을 사랑하고 아끼며, 동굴과학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노력하시는 동굴학회 회원님들의 고귀한 학문적 견해와 소중한 학술적 논거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닦고 쌓아온 이론과 현실사회를 투영하는 해맑은 고견들을 모아 우리사회의 발전을 향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의 해법을 제안하는 토론의 장을 이루는 소단위의 학술발표 및 토론회이며, 이를 통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활성화 수단으로써, 학회 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향후 학회 육성발전에 초석이 되어줄 근엄하고 거대한 동굴(洞窟)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학문적 동기와 취지에서 계획된 주요한 학회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성된 학술단체(이하 학회)는 동일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술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써 학술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류 번영과 문화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이다.

그러므로 한국동굴학회의 설립목적은 학회의 정관 제1조(목적)에서 “본 학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동굴의 과학적 조사와 탐사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동굴의 보존, 안전관리, 문화적 가치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한 과학적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인류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조직의 모체로써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두어 설립목적에 근거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굴의 지역적 분포 특성과 동굴마다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각 지역 지부의 필요성은 절대적임의 주장에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명지대학교 교수  
\*\* 화산지형지물연구소장  
\*\*\* 본학회 감사

## II. 지부활성화 방안

지역의 지부가 구성되어 운영되면 당연히 지부활성화 노력과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도 당연한 논리로 부각되며, 항상 대두되는 일이다. 하지만, 조직의 활성화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늘 그의 반대급부 논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사회조직마다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이 어디에서나 으뜸가는 업무로 꼽히게 된다.

그렇지만 필자는 학술단체 지부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적하여 문제제기와 동시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자활적 지역순환 지부 학술제 및 종합예술제 행사 유치

▶ 지역 내 관광동굴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동행사 기획 유치

▶ 지부 운영활동의 자치운영제도 시행과 효율적인 회원 및 조직 관리

한편, 올해 첫 동굴학회소식지에 보였듯이 마치 동굴예찬론이라도 펼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동굴(洞窟)이라는 대상을 제목으로 필자의 생각을 더듬어 적어보았던 몇 구절의 시구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필자를 거대한 자연의 일부인 동굴에 비쳐보았을 때 스스로 고개 숙여 아부라도 하듯 동굴을 예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인 것은, 아마 필자가 동굴학회 회원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여 억지위안을 삼으며, 여기 다시 적어본다.

深山보다도 더 깊은 冥想 최고봉,

예수를 만나고 부처와 對話하고 天主님과 거니는 곳,

千年을 기르고 萬年을 닦아온 自然 수련원,

늘도 귀도 필요치 않은 天惠의 맑은 곳!!

## III. 월례심포지엄 순회개최와 지부활동

자연동굴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동굴관리정보시스템(CMIS)의 구축이 긴요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첨단 과학적 정보수집과 분석 전략이 크게 요구됨으로, 본 심포지엄의 바탕주제를 “자연동굴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한 CMIS 구축전략 심포지엄(Symposium on CMIS Construction Strategies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al Cave Resources)”으로 자연스럽게 선정하였다. 여기서 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동굴과학 대중화와 국민이해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모색된 “현장체험 활동 및 탐사 심포지엄” 사업은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동굴의 생성과정과 그 역사의 배경 학습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즉, 기적과 같은 천연공법의 신비로움과 온갖 미스터리의 베일을 과학적으로 풀어줌과 동시에, 오늘의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생활의 풍요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시민생활과 심신보건을 위한 문화생활의 전수, 전통문화와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체험, 그리고 이를 보존하고 지켜야할 소중한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시켜 동굴과학을 영원히 발전시킴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대중을 위한 동굴과학체험 현장으로부터 종합과학의 동굴문화관광 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 과학대중화 및 국민이해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동굴과학 발전에 기여함과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심포지엄 사업이다. 그 추진계획은 회원중심 활동을 우선하며 필두로 세우고, 국민대중의 과학이해 확산을 위하여 비회원 활동을 적극권장, 환영하며 이들을 추후 학회회원 활동에 영입함

을 전제하고, 이들의 협력활동으로 월례현장체험 동굴과학국민이해제고 사업을 국내와 해외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순회체험활동으로 추진하도록 기획하여 사업 홍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동굴과학의 발전과 자연동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구축의 자발적 학술활동으로 모색된 “자연동굴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한 CMIS 구축전략 심포지엄” 사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동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통합운영이 가능한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및 그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 활동으로써, 이를 통하여 동굴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한 동굴관리시스템(CMIS : Ca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 제안하고자 하는 학술심포지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동굴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 생성된 생명체로써, 특유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이며, 생태환경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수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는 동굴의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동굴엑스포(2002년7월10일~8월10일)는 그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써, 동굴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부각시켜준 관심대상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동굴의 관광개발과 관람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관광동굴의 경우 동굴내외부의 심각한 환경파괴와 오염, 동굴생

물의 생태변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관광동굴은 그 실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 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대상 중 자연동굴이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전국단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관광동굴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보존 및 관리 체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굴의 활용방안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학문적 제한을 두지 않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현 시점의 관광동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 IV. 학술심포지엄과 목적사업

그러므로 한국동굴학회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포지엄 사업은,

첫째, 우리나라 관광동굴의 개발 과정과 현재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관광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행태분석을 통하여 현재와 향후 요구되는 수요적 측면의 내용 검토와 타 관광동굴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관광동굴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셋째, 관광동굴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합운영 가능한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CMIS 동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열린 학술토론

의 장이며, 그의 목적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동굴학회 및 지부(지회) 발전 방향 수립
- 동굴과학 국내외학술교류 방안 모색
- 한국동굴자원 관리보존방안 모색
- 한국동굴자원 관리시스템의 지리정보활용방안 모색
- 효율적 동굴관리를 위한 CMIS동굴관리시스템 개발 및 채용 방안 모색
- 유라시아지역 및 동북아시아지역 동굴학술단체협의회(또는 공동체) 구성
- 중국요녕성환인현 땅천동(굴) 교류협력계획 추진
- 동북아시아 동굴과학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한·일 동굴과학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베리아지역 동굴학술단체교류협력 방안 모색
- 중앙아시아지역 동굴학술단체교류협력 방안 모색
- 사마르칸트지역 동굴분포 및 지형지질 분석 연구 교류 추진 방안 모색
- 동남아 및 유럽 지역 동굴과학협력 기구(공동체) 구성/참여 방안 모색
- 상기 추진계획 및 방안 모색 결과의 대 정부기관 건의 및 제안 추진

이와 같이 지속적인 월례정기학술심포지엄은 비록 동굴과학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이슈들을 대상 주제로 삼아 그들의 심층적 분석을 통한 해법 모색과 아울러 학회활성화의 발전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학술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지역별 지부활성화에도 동일한 기대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역별 현장답사를 동반하는 순회 심포지엄 활동을 추진하는 까닭이다.

또 하나의 중요성은 동굴예술(Cave Art)을 통한 학회 활성화의 모색이다. 고대사회로부터 이

어저은 인간의 동굴이용 지혜와 관련하여, 동굴 보존과 이용을 위한 탐험기술을 비롯한 동굴내부 환경을 활용하는 기술 즉, 동굴공학의 연구개발과, 이의 대상 분야로 종합예술문화의 활성화 개척 활동이 요구되는 일이다.

여기서 동굴예술은 동굴의 특수한 구조와 환경을 활용한 종합예술활동으로써, 동굴음악예술, 동굴미술예술, 동굴체육예술, 동굴무용예술, 동굴산업예술, 동굴사진예술 등의 여러 가지 예술적 활동을 총칭한다. 즉, 동굴콘서트, 동굴오케스트라, 동굴음악회, 동굴음악 감상회, 동굴가요음악회, 동굴음악제 또는 가요제 등의 다양한 음악예술 활동과, 동굴미술전시회, 동굴사진전시회, 동굴조각전시회, 동굴사생회화전시회, 각종 체육공연예술, 무용예술, 각종 발표회, 각종 작품전시회, 의상발표회, 각종 학술예술심포지엄 및 세미나, 각종 산업예술 활동들을 지칭하며, 이를 위한 예술 공간의 활용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종합동굴예술 활동이다. 특히 앞의 시문에서도 표현된 바와 같이, 자연동굴 공간은 지하에 천연적으로 생성된 맑고 정숙한 천혜의 특수공간으로 地氣(땅의 氣)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의 새로운 응용분야 활동을 개척하는 데에도 동굴학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V. 맺어나가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별, 유형별 종합동굴예술제를 개최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동굴학회 연례학술활동의 개최장소 선정에서도 우선적으로 동굴내부 공간 활용 또는 동굴지역 내의 선택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상정한다.

끝으로,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지

역지부의 활성화와 적극적 관리 및 동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계 설정과 지부회원관리에 대한 제언이다. 어느 특정 지부뿐만 아니라, 현재 본부를 포함한 지부 조직의 관리에서 단체조직 구성 관리와 개인회원 및 쌍방 간의 통신협력 수단의 문제이다. 비교적 수년전의 경우만 해도 개체 상호간의 통신수단에서 우편, 전화 및 팩스 통신의 수단이면 별로 불편 없이 업무관리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정보통신 수단이 열린 오늘에는 우편·전화 통신 수단만으로는 한정된 메시지와 제한된 시공간적 통신활동 밖에는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시대적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통신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동굴학회의 노령화와 구성원의 특성상 시대적 정보통신기술 수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굳이 구시대적 수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나 탈피할 수 있을지가 우리 학회의 현대화발전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학회 본부와 지부 활성화의 관건이며, 제4회 월례정기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선정의 필요성이지만, 오로지 필자의 무성의한 제언 뿐 일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아쉬운 필문을 맺습니다.